

中企人 250명 모인 경주서 與·野, '표심 잡기' 총력

중기중앙회 '2021 리더스포럼' 여·야 대표, 개막식 특별 강연 "차기 정부, 양극화 완화 과제"

여·야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경북 경주로 달려왔다.

내년 3월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00만에 가까운 중소기업에게 각 당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는 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브이노믹스시대의 중소기업'을 주제로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3박4일 일정에 들어간 리더스포럼에선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개막식에 초청, 특별강연을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대선이 133일 남았다. 대선은 기존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송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좋았지만 최저임금

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었다. 올린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도 많이 썼다. 다른 벽돌을 빼서 또 다른 공간을 메꾸는 꼴이었다"면서 "부동산 문제도 규제만했지 제대로된 공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노하우와 기술을 승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개성공단도 다음 정부서 꼭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인수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 기업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52시간제도 재검토하겠다. 최저임금 제도는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

대책이 없었던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송 대표로부터 강연바통을 이어받은 이준석 대표는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선의에서 추진한 정책이 많았지만 선부터 입안으로 기업인들 피해도 많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인데 과연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이 (제도를) 감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은) 책상머리에서 학자들이 고민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시장은 정부 예측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표와 우리당 모두 '기업의 자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집중하겠다. 기업승계도 3000억원으로 돼 있는

상속공제 기준을 올리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도 지금보다 늘리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용확대 지원정책도 코로나19 회복기에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했다.

권철승 장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제조 혁신으로 가지 않고 선 경쟁력이 없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 많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 상생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수직계열화가 심하다.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이 되지 않고선 대립관계가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상생



중기중앙회가 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왼쪽부터)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은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당시 1회를 시작으로 14회째를 맞는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엔 25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688만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되고, 경제강국이 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양극화 해결”이라면서 “성장도 좋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김 회장은 두번째 과제로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양대노종이 코로나 위기에도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민주노총은 1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가입시켜 세를 불리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면서 “노동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우리나라 발전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주52시간제 개선 ▲기업 승계 원활화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대응 ▲디지털 전환 대응 ▲보호무역 확산 대응과 국내 공급망 복원 등의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경주(경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커피찌꺼기서 친환경 세제... R&D 과제 선정

중기부, 사업연계형 R&D 지원사업을 처음 시도한 사업에 470개 신청

커피 찌꺼기에서 친환경 바이오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과제 등 10개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중기부가 2개 사업을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 등 장기 기술개발(R&D) 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앞서 관련 사업에는 총 470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과제)은 ▲고려기연(탄소중립의 '열쇠'를 일체형 GLOVE BOX에서 찾다) ▲엔사이트(전기차 폐배터리, 이동식 중·방전장치로 쉽고 효율적으로 재사용) ▲비제이바이오켐(지구의 폐기물을 화장품으로 만드는 반응식을 개발한다) ▲지엘켄(전기자동차용 K-배터리를 이끄는 복합수제

바인더 개발) ▲그리너지(그래핀 소재와 음극재 융합을 통한 고출력 이차전지 팩 개발) ▲영원코퍼레이션(항바이러스 K섬유, 코로나와 ESG를 잡아라) ▲일렉트로엠(고효율 분말소재와 분말코어 개발을 통한 고품성 인덕터 개발) ▲애자일소다(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심층강화학습 솔루션으로 해결한다) ▲제이세노(이제는 달리기 시합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합니다) ▲레비노(메타버스와 야구의 결합으로 더 쉽게, 더 전문적으로 즐기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2021 인간공학 디자인상' 특별상

뷰티레스트 켈몬 '호평'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켈몬(Zalmon)이 '2021 인간공학 디자인상(Ergonomic Design Award)'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16일 시몬스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켈몬은 감성품질, 사용 편리성 및 기능성, 안전성 등 다방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켈몬은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이번 평가에선 감성과학을 도입해 사용자에게 감성품질을 선사한 점이 높은



시몬스의 시몬스 침대.

평가를 받았다. 시몬스는 수면 중 체압 분포, 척추 형상 등으로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침대에 누웠을 때 느끼는 만족도 등을 수치로 환산해 매트리스 분석 및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까사, '웰컴 투 호텔 까사미아' 오픈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공간 제안

신세계까사가 연말을 맞아 서울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웰컴 투 호텔 까사미아(Welcome to Hotel CASAMIA)'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16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서 진행되는 팝업스토어는 럭셔리 호텔 라운지 및 스위트룸

컨셉으로 신세계까사만의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제안한다.

특히, 신세계까사의 광고 캠페인을 장식한 다양한 프리미엄 가구와 베스트 셀러 제품들을 활용해 고급스럽고 안락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연출했다. 공간에는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채워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팝업스토어에선 까사미아 캠프 소파



신세계까사

의 최상위 시리즈 '캠프 러스'를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2021 함께한 발걸음' 행사

최초 구매고객에 20% 할인 혜택

공영홈쇼핑이 올해 상생소비에 동참한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1 함께한 발걸음' 행사를 펼친다.

1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적립금 페이백 행사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구매를 끝내고 같은 달 26일까지 배송 완료한 주문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무형상품, 여행, e쿠폰, 돌발상품 등을 제외하고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주문 횟수에 따라 적립금을 제공한다.

적립금은 12월28일부터 고객 회원번호 기준으로 순차 지급한다. 지급한 적립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쓰지 않은 적립금은 자동 소멸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추가접종 간격 조정안 발표
▲ 한-감염병혁신연합 백신 라운드 테이블 개최... '백신 협력 강화' /사진 뉴시스

▲ 호주서 수입 요소수 중 4790L 구급차 공급... 최소 2개월 원할
▲ '집중완료율' 40대도 90% 돌파... 12~17세 8.9% 저조



▲ '가장 깨끗한 물' 반도체용 초순수, 국산화 시동 걸었다
▲ 음성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병... 울 가을 4번째 /사진 뉴시스